

##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Climate, Peer Support and Self-Esteem on  
Children's Self-Regulation\*

정희선(Hee Sun Jung)<sup>1)</sup>

박성연(Seong Yeon Park)<sup>2)</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amily climate, peer support and self-esteem on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69 children ( $M=11.78$  year)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family climate, peer support,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Data were analyzed means by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AMOS 7.0. Our results indicated that (1) family climate, peer support and self-esteem were directly link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2) the associations between family climate or peer support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were mediated by children's self-esteem. These results imply that family climate and peer support are important antecedent variables in predicting children's self-regulation as well as their relative levels of self-esteem.

**Key Words** : 가정분위기(family climate), 또래지지(peer support),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

### I. 서 론

최근 4년 동안 초·중·고등학생의 자살률이

42%나 증가(통계청, 2007)하는가 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9~12세 사이  
아동의 12.5%가 인터넷 중독을 나타내고 있어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전공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 협동과정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t. of Psychology/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아동의 충동적인 행동이나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폭행이나 공격적인 행동 등 외현화된 문제나 우울이나 외로움 등 내면화된 문제를 나타내기 쉬우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홍승표·이희주, 2007).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는 능력, 즉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데서 찾을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이란 타인과 조화롭게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이나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외적인 통제 대신 내면화된 규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송혜영, 2006; Kopp, 1982).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롭고 융통성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며, 겉으로 표출되는 행동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초점을 둔다(Kochanska, Coy, & Murray, 2002). 반면,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경험을 통해 사회상황에 맞게 정서를 조절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으로 내면적으로 느끼는 정서 뿐 아니라 겉으로 표출되는 정서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Thompson, 1994).

일반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사용하며, 자신감과 유능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신뢰한다(Bronson, 2000). 반면에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여 외현적인 문제행동과 내재화된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사회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이거나, 장기적인 목

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발달은 물론,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자기조절능력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동적 조절과 정서적인 조절능력이 포함됨(Kopp, 1982)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행동적인 자기조절능력 또는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의 일부분에만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내면적인 정서를 조절한 결과로 행동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자아를 진정시키는 행동을 통해서 정서가 조절되기도 한다(정은주, 2005; Kopp, 1982).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적인 자기조절과 정서적인 자기조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지금까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의 정서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다(Bronson, 2000; Low, 2003; Moilanen, 2005). 그러나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육행동 뿐 아니라,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믿음 및 신뢰정도가 포함된 전반적인 가정분위기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써,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가정분위기를 뜻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가족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뜻하는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감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가정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느끼게 한다(허정철, 2008).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자

녀간 자유롭게 솔직한 감정을 주고받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은 높게 나타났으며(Barnes & Olson, 1985),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은 심리적 지지와 안정을 경험하고 만족과 충동을 제지할 수 있게 되어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이경남, 2003). 반면에 가족원과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낮아 자신의 가족이 역기능적이라고 지각한 아동은 자기조절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Michael, Duncan, Howard, Levent, & Ralph, 1999), 가족원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지각한 아동은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져 외현적 문제행동이나 내면화된 문제를 보였다(Barber & Erickson, 2001). 따라서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원간의 유대감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정분위기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높을 때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은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유아기보다 또래와의 접촉이 더욱 빈번해지고 광범위한 또래관계망을 갖는 아동기에는 가족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 중 특히 또래지지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영주, 2007). 즉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은 자기조절능력이나 자기통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에게 인기가 있는 아동은 또래에게 거부된 아동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였고 분노감정을 잘 통제하였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Ryan, Stiller, & Lynch, 1994). 같은 맥락에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아동의 학업적 대처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은 높고, 또래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은 외현적 또는 정서적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어 사회생활적응을 잘하였다(김선자 · 조옥귀,

2003; Bagwell, Newcomb, & Budowski, 1998). 반면, 또래의 수용도가 낮을 경우 아동은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임연진 · 나유미, 2003; Helen, 1997).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또래수용도나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또래지지는 정서적 지지 뿐 아니라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분(박지원, 1985)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래로부터의 지지적 자원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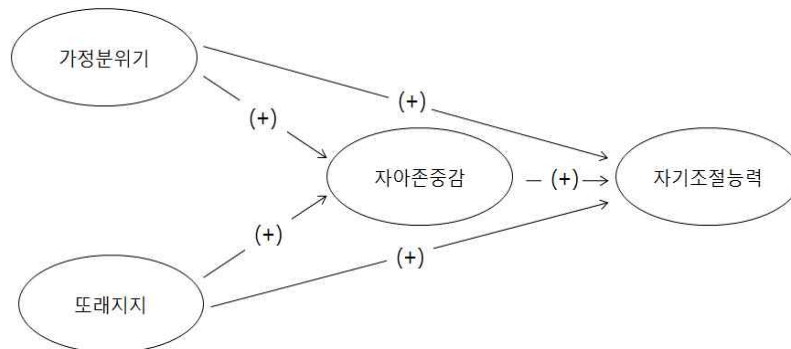
가정분위기나 또래지지 외에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안차수, 2008), 대부분 문제행동이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학업성취능력이나 학교적응능력이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우울, 불안 수준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도금혜, 2008; McMahon & Watts, 2002). 그러나 아동의 자아개념과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을 보고한 몇몇 선행연구(이경남, 2001; 이영주, 2007)에 근거해 볼 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며,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상황적 요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 및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자아존중감은 양육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또래관계가 점차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아동기부터는 또래지지에 의한 영향도 받게 된다. 즉,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 특히 부모나 또래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자신이 유능한 존재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

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Demaray & Malecki, 2002). 우선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와 친밀하고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자녀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며(도금혜, 2008), 가족원간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아 자신의 가족을 기능적으로 느끼며, 가족원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Roberts, Edward, Sara, Daniel, Allen, LaRue, Lawrence, Valkiria, & JoAnn, 2000). 또한 부모와의 솔직하고 진실한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아가 정서적인 안정을 줌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잘 조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 Hoffman, Edelstein, & Keller, 1997). 반면,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자녀는 우울이나 불안 등 내면적인 부적응이나 대인관계 및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낸다(김애경, 2001; 김영희·이정미, 2002; 임연진·나유미, 2003).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적응은 자기조절능력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Eisenberg et al., 1993)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가족원과의 유대감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또래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또래지지가 낮은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Bois, David, Burk-Braxton, Carol, Swenson, Lance, Tevendale, Heather, Lockerd, Erika, Moran, & Benjamin, 2002). 또한 또래로부터의 지지적 자원 중 남자 고등학생은 평가적인 지지가 높을수록(정기원, 2006), 여자 고등학생은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이완정, 2003)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같은 맥락에서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였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여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였다는 보고(하영희 & Edwards, 2004)도 있다. 따라서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아동이 속하고 있는 가정의 분위기, 또래로부터의 지지 또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은 각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변인들의 일부 측면 또는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자기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여러 변인들이 어떠한



<그림 1> 연구모형 :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함께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경로를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아동이 지각한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서 재학 중인 369명(남아 : 178명, 여아 : 191명)의 아동으로 평균연령은 11.8세( $SD=.89$ )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3세, 어머니는 40세이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업 이상이 약 43%를 차지하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 약 44%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으로 보아 본 연구 대상 가정은 중류층으로 볼 수 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아동보고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질문지는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가정분위기

가정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의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한영숙(2006)이 아동용으로 수정한 척도 중 가족원간의 유대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2개 요인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에 관한 문항(10문항)과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9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분위기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에 의한 가정분위기 척도의 신뢰도는 ‘가족원간의 유대’는  $\alpha=.87$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85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 2) 또래지지

또래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승미(1998)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지지(7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5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86에서 .90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 3)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연희(2005)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3$ 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 4) 자기조절능력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Kopp(1982)의 개념을 토대로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으로 측정하였다.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허정경(2003)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중 행동적인 요인에 관한 8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정서적인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8)의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강지훈(2004)이 수정 보완한 척도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척도는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각각의 척도를 하나의 측정도구로 구성하였으므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2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방식으로 3개 요인을 추출한 후 Varimax rotation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능적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 요인(10문항),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요인(5문항), 역기능적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요인(4문항)으로 19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행동적 자기조절'이 .64, '기능적 정서조절'이 .76,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51으로 나타나, 역기능적 정서조절문항의 신뢰도는 다소 낮았다.

###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2개교 4, 5, 6학년 아동에게 교사를 통해 아동용 설문지 총 412부를 배부한 후 약 2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401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32부를 제외하고 총 369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

석을 위해서는 기술통계 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7.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간에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경로를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잠재변인을 표현하고자 할 때 다중측정변인을 이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김계수, 2007), 단일점수인 자아존중감은 문항내용을 기초로 문항묶음(Parceling)을 한 후(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분류가 어려운 1개의 문항은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문항은 3문항씩 나누어 가치감, 만족감, 유능감의 3개 측정변인으로 묶음화하였다. 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각 요인의 신뢰도는 .73에서 .80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집크기에 영향을 받는  $\chi^2$  값(홍세희, 2000)외에도 표본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된 정도를 나타내 주는 RMSEA, TLI, CFI를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인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의 두 단계 분석절차를 거쳤다. 우선 측정모형 분석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입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잠재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후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고 각 변수들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

<표 1>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369)

잠재변수	측정변수	B	$\beta$	SE	CR
가정분위기	가족원간의 유대	.848	.882	.048	17.594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1.000	.891		
또래지지	정서적지지	.970	.885	.044	21.936
	평가적지지	1.016	.924	.043	23.497
	정보적지지	.985	.892	.044	22.163
	물질적지지	1.000	.838		
자아존중감	가치감	1.270	.858	.107	11.871
	만족감	1.244	.840	.105	11.822
	유능감	1.000	.611		
자기조절능력	행동적 조절능력	.587	.356	.100	5.849
	기능적 정서조절능력	1.000	.767		

주) 모두  $p < .001$ 에서 유의하였음, 역기능적 정서조절능력은 제거되었음.

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 1. 측정모형 분석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의 구성개념들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3보다 낮게 나타난 역기능적 정서조절능력( $\beta = .17$ )은 제거하였으며<sup>1)</sup>, 공분산이 높은 정서적지지와 만족감을 공분산 경로를 연결한 후, 가치감과 기능적 정서조절능력도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또한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기 전과 연결한 후의  $\chi^2$ 값의 차이검증 결과는 유의미하여, 공분산 경로를 연결한 모형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75.042$ ,  $df = 36$ , CFI = .985, TLI = .977,

RMSEA = .054(90% 신뢰구간<sup>2)</sup> : .037~.072)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충족시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는 행동적 조절능력( $\beta = .36$ ,  $p < .001$ )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측정변수는 이론변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표 1>).

한편,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표 2>). 즉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능력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분위기, 또래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정분위기와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

1)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  $\beta$ )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5를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수와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요인부하량 고려 수준은 낮아지며, 표본의 크기가 350명 이상일 경우 요인부하량은 .3을 기준으로 한다(김계수, 2007).

2) RMSEA 값과 그 값을 중심으로 90% 신뢰구간을 산출하는데, 특히 신뢰구간의 상한(High)값이 .80(혹은 .10)보다 낮으면 적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뢰구간이 좁을수록 추정이 정밀하므로 RMSEA 적합도를 보다 수용할 수 있다. 즉, 동일한 RMSEA 값이라도 신뢰구간이 좁으면 적합도가 보다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08).

<표 2>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 (N=369)

	가정 분위기	또래 지지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능력
가정분위기	-			
또래지지	.45***	-		
자아존중감	.50***	.43***	-	
자기조절능력	.51***	.43***	.46***	-

p<.001

타났으며, 가정분위기는 또래지지와도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가정분위기가 높을수록 또래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 2. 구조모형 분석 :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연구문제인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 보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75.042$ ,  $df=36$ , CFI=.985, TLI=.977, RMSEA=.054 (90% 신뢰구간 : .037~.072)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 즉, 부분매개모형에 대한 보다 엄격한 분석(Rigorous Analysis)을 위해 대안모형으로 가정분위기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직접경로와 또래지지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직접경로를 모두 제거한 완전매개모형을 추가적으로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우수하였으며, 대안모형은 Nested관계에 있으므로 두 모형의  $\chi^2$ 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James & David, 1998).  $\chi^2$ 차이검증결과  $\chi^2 diff(2)=63.807$ 로 유의확률 5%의  $\chi^2$ 값의 분포 임계치인 5.9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이학식·임지훈, 2008), 대안모형보다는 이론모형이 더 나은 모델임이 판명되었다(<표 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인 이론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과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듯이 가정분위기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정적인 영향력( $\beta=.443$ ,  $p<.001$ )을 미쳤고, 또래지지 역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정적인 영향( $\beta=.260$ ,  $p<.001$ )을 미쳤다. 또한 가정분위기는 자아존중감과도 정적인 영향( $\beta=.473$ ,  $p<.001$ )을 미쳤으며, 또래지지는 자아존중감과도 정적인 영향( $\beta=.260$ ,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정적인 영향( $\beta=.335$ ,  $p<.001$ )을 미쳤다(<그림 2>).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김계수, 2007). 분석결과, 가정분위기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간접경로는  $\beta=.158$ , 유의확률은  $p=.00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또래

<표 3>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N=369)

	$\chi^2$	df	CFI	TLI	RMSEA		
					M	LO90	HI90
이론모형	75.042	36	.985	.977	.054	.037	.072
대안모형 <sup>a</sup>	138.849	38	.961	.943	.085	.070	.100

주) \*\*\*p<.001, <sup>a</sup> : 또래지지→ 자기조절능력과 가정분위기 → 자기조절능력의 직접경로 모두 제거



<표 4> 이론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

(N=369)

	B	$\beta$	S.E.	C.R.	P
가정분위기→자기조절능력	.321	.443	.055	5.876	***
또래지지→자기조절능력	.148	.260	.036	4.159	***
자아존중감→자기조절능력	.271	.335	.068	3.981	***
가정분위기→자아존중감	.423	.473	.062	6.815	***
또래지지→자아존중감	.184	.260	.043	4.815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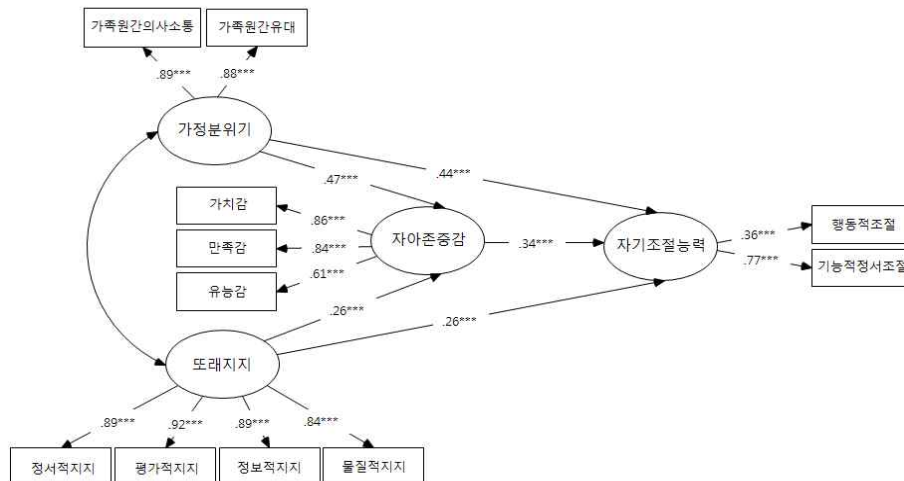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간접경로는  $\beta = .087$ , 유의확률은  $p = .00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5>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의 인과적 효과

	인과적 효과( $\beta$ )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가정분위기 → 자기조절능력	.443	.158	.601
또래지지 → 자기조절능력	.260	.087	.346
자아존중감 → 자기조절능력	.335	-	.335
가정분위기 → 자아존중감	.473	-	.473
또래지지 → 자아존중감	.260	-	.260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들 변인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초등학교 아동 36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잠재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 보았다. 또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구조모형분



주) \*\*\* $p < .001$ , 측정오차 생략함.

<그림 2>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석을 통한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으며, 각 경로의 인과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측정모형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각 기준치를 충족시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기준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측정변수는 이론변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은 모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한편,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하였다. 특히 가정분위기는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조절능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유대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구조모형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절대부합지수와 증분부합지수의 각 기준치를 충족시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매개모형으로 설정한 이론모형이 완전매개모형으로 설정한 대안모형보다 더 나은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정분위기와 또래지지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분매개 모형에 근거한 경로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정분위기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에서 부모와의 유대가 좋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자신의 행동이나 정

서를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기능적이고 원만한 상호작용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arnes & Olson, 1985)와 유사하다. 또한 가족원간의 갈등이 심한 환경의 청소년은 우울, 불안 등 부적응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Barber & Erickson, 2001)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부모와 아동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사랑과 믿음이 있는 가정분위기는 아동이 스스로 행동이나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정분위기는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이 자신의 가정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아동은 자신의 행동 및 정서에 대해 조절하려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녀는 외로움이나 우울을 덜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김애경, 2001; 임연진·나유미, 2003)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간의 갈등의 지각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더 나아가 청소년 자녀의 내면화 부적응과 외면화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영희·이정미, 2002)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이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를 신뢰한다고 지각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 평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스스로 점검, 계획을 하고 통제 및 조절하려고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가족원간 서로 믿으며 신뢰하는 정도가 높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게 되며, 나아가 자기조절능력을 향

상시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또래지지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또래에게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낀 아동은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에게 인기를 가진 아동은 또래에게 거부된 아동에 비해 분노감정을 잘 통제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인다는 Coie, Dodge와 Kupersmidt(199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임연진·나유미, 2003; Helen, 1997)나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학업적 대처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Ryan, Stiller, & Lynch, 1994)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아동은 가까운 타인에게 긍정적인 지지나 기대를 받게 되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시키고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충족되는 방향으로 행동과 정서를 통제하거나 조절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학령기 아동에게는 또래에게서 받는 여러 가지 지지적 자원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지지는 또한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아동은 자기조절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경로로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하영희와 Edwards(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관계를 나타내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아동은 우울이나 문제행동이 낮았다는 연구결과

(Demaray & Malecki, 2002)를 뒷받침 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이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지지한다고 느끼는 아동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며, 이러한 자긍심은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높여주어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자신을 잘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기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또래지지는 정서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모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외현적 문제행동과 정서적인 문제가 적게 나타난 연구결과(김선자·조옥귀, 2003)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은 사회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Bagwell, Newcomb, & Budowski, 1998)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정기원, 2006)와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이완정, 2003)를 지지한다. 즉, 그동안 주로 연구되어 왔던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뿐 아니라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도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모든 측면의 지지적 자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이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나 유능감이 높고, 자신에 대해 만족할수록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행동이나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진다는 이경남(2001)과 이영주(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나 불안한 정서가 낮았으며(McMahon & Watts, 2002),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인다는 선행연구(도금혜, 2008)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 아동은 자신의 삶이나 사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겨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비교한 결과, 가정분위기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또래지지나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총 효과 면에서 볼 때, 가정분위기는 자기조절능력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beta=.601$ ), 그 다음으로 또래지지( $\beta=.346$ ), 자아존중감( $\beta=.335$ )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족원간의 유대나 원활한 의사소통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가정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정분위기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한편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이나 유대관계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발달에 가족원간 서로 신뢰하고 믿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며,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는 아동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도 중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정정해주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유능감을 높여주는 자아존중감 향상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로모형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아동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횡단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결과는 설정된 모형과 제한된 변인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한 종단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즉, 본 연구는 가정분위기와 또래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서 가족의 역할 및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해 가족의 정서적 관계와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진 훈련이나 또래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지훈(2004).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2007).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 한나래출판사.
- 김선자·조옥귀(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 교육문제연구소, 13(1), 361-385.
- 김승미(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연희(2005).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자기 통제력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 이정미(2002).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95-114.
- 도금혜(2008). 아버지 관련 변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61-872.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혜영(2006). 유아의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차수(2008). 초등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과 예방프로그램의 효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언론학회**, 8(3), 347-380.
- 어은주 ·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이경남(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경남(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통제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1), 77-91.
- 이영주(200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연구 : 아동의 자아개념과 부모, 교사, 친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정(2003).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조와 기능 및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49-60.
- 이학식 · 임지훈(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범문사 : 경기
- 임연진 · 나유미(2003).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연구**, 5(2), 61-69.
- 정기원(2006).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3(1), 165-190.
- 정은주(2005). 연령, 인지양식에 따른 유아의 행동적 ·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 **영유아교육연구**, 8, 241-259.
- 통계청(2007). 사망원인통계연보.
- 하영희 & Edwards(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된 인간의 인과관계 : 친사회적행동, 감정이입,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121-132.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한영숙(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구 :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경(2003).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정철(2008).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3), 123-147.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홍승표, 이희주(2007). 인터넷중독에 따른 초등학생의 비사회행동 연구. **아동학회지**, 29(10), 205-216.
- Bagwell, C., Newcomb, A., & Budowaki, W.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ber, B. K., & Erickson, L. D. (2001). Adolescent Social Initiative : Antecedents in the Ecology of

- Social Connection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4), 326-354.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l-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 nature and nurture*. The Guilford Press.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maray, M. K., & Malecki, C. K. (2002). Critical level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ssociated with student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7*, 213-241.
- DuBois, David L., Burk-Braxton, Carol, Swenson, Lance P., Tevendale, Heather D., Lockerd, Erika M., Moran, & Benjamin L. (2002). Getting by with a little help from self and others :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s resources during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822-829.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es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a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Hart, D., Hofman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95-205.
- Helen P. (1997). Social Self-Regulation : Exploring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Academic Self-Regulation, and School Performance. *Educational Psychologist, 32*(4), 209-220.
- James C. Anderson & David W. Gerbing (1998). Structural Equatind Modeling in Practice :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Kochanska, G., Coy, K. C., & Murray, K. T. (2002).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 1091-1111.
- Kopp, C. B. (1982). Regulation of disstress and negative emotions : A development view. *Development Psychology, 25*(3), 343-354.
-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Low, C. M. (2003). Self-regulation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 Roles of cognition, temperament and parenting.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 D.
- McMahon, S. D., & Watts, R. J. (2002). Exploring links with self-worth, aggression, and other psychosocial variables. *Ethnic identity in urban Afric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4), 411-432.
- Michael D., Duncan C., Howard M., Levent K., & Ralph T. (1999). Family and Peer Correlates of Behavioral Self-Regulation in Boys at Risk for Substance Abuse. *Am. J. Drug Alcohol Abuse, 25*(2), 219-237.
- Moilanen. K. L. (2005). Parenting and self-regulation in adolescence : Associations with adolescent behavior, University of Nebrasks Lincoln.
- Roberts A., Edward S., Sara P., Daniel C., Allen L., Lawrence A., Valkiria D., & JoAnn H. (2000). Perceived Family and Peer Transactions and Self-Esteem among Urba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 68-9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Shield,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a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2009년 8월 28일 투고, 2009년 11월 2일 수정  
2009년 11월 17일 채택